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2024년 제109호
2024.06.13.(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미국·반도체** 美,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對중동 수출 승인 보류
- 중국·배터리** 中, 60억 위안 규모 전고체 배터리 R&D 지원금 조성
- 인나·광물** 인도네시아, 구리 정광 수출금지 시행 내년으로 연기
- 중국·에너지** 中 태양광 업체, 잇따라 동남아 공장 가동 중단

주간 이슈 포커스

- 미·중·통상** 美-中 경쟁 고조에 따라 中 기업의 베트남·멕시코 투자 확대

원자재 뉴스 PLUS

- 에너지** OPEC+, 원유 감산 '25년 말까지 연장 결정

II. 월간 공급망



소부장 품목 심층분석 - 불화수소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IEA의 청정에너지 보급 동향과 시사점

IV. 공급망 소식통



SEOUL FOOD in Bangkok 2024 B2B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국, 반도체 美, 엔비디아 등 AI 반도체 對중동 수출 승인 보류

- 5.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美 정부가 엔비디아·AMD 등이 사우디·UAE·카타르 등 중동으로 선적하기 위해 신청한 라이선스 발급을 보류 중이라고 보도
- 美 상무부는 지난 '23.10월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40개국 이상 국가에 첨단반도체 수출 시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
 - 관계자들은 사우디·UAE 등이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中 기업이 중동 데이터센터를 통해 첨단반도체에 접근할 가능성을 제기

핵심 키워드

첨단반도체

대중제재

출처: 블룸버그('24.05.31), 조선일보('24.06.0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중국, 배터리 中, 60억 위안 규모 전고체 배터리 R&D 지원금 조성

- 5.2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에 60억 위안 (약 1조 1,3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
- CATL, BYD를 포함하여 中 배터리·자동차 관련 6개 기업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금의 형태나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
 -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안전성, 수명, 충전 속도 등의 방면에서 월등히 뛰어나지만,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주요국 선도 기업들만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에 착수했으며, 광치, CATL 등은 상용화 및 양산 계획* 발표
- * 광치('26년 전고체 배터리 탑재), CATL('27년 소규모 양산 개시)

핵심 키워드

중국

전고체배터리

출처: 중국 매일경제신문('24.05.29), 연합뉴스('24.05.29, '24.06.03)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인니, 광물 인도네시아, 구리 정광 수출금지 시행 내년으로 연기

- 6.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구리 정광 수출금지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보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리·철·납·아연 등 광물 수출 허가를 '24.12.31일까지 연장하고 동 광물에 대해 완화된 수출세 부과 조치를 발표
 - * 구리 정광에 7.5%, 철·납·아연 정광에 5% 수출세 부과로 '24.6.3일부터 적용
 -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자국산 광물 수출 금지를 추진 중이나, 신규 제련소 가동 지연 등으로 계획 연기
- 금번 수출 금지 연기는 파나마의 주요 광산 폐쇄, 中의 대규모 생산 능력 확장으로 원료 부족을 겪고 있는 세계 구리 제련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23년 기준 한국의 구리 수입액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2.4%로, 인니 광물 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핵심 키워드

구리정광

수출금지

출처: 블룸버그('24.05.31), 연합뉴스('24.06.04)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중국, 에너지 中 태양광 업체, 잇따라 동남아 공장 가동 중단

- 6.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中 주요 태양광 기업*이 美 무역 정책 강화와 시장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동남아 생산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라고 보도
- * 론지(Longi, 隆基绿能), 트리나솔라(Trina Solar, 天合光能) 등
 - 업계는 美 정부의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 대상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잠정 중단 조치가 6.6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라는 분석
 - *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 동남아산 제품에 대한 美 관세가 인상될 경우, 中 태양광 업체들의 공급망 조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 트리나솔라 등 中 태양광 업체는 생산시설 점검 등을 위한 공장 가동 중단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美·인니 공장 건설 추진 등을 통해 관세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

핵심 키워드

태양광

우회수출

출처: 차이렌서(財聯社)('24.06.05)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워싱턴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미·중, 통상 美-中 경쟁 고조에 따라 中 기업의 베트남·멕시코 투자 확대

6.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수출입 통계를 통한 美-中-베트남 간 무역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고 보도

-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對中 수입과 對美 수입 변동량 사이의 상관관계는 96%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84% 대비 증가한 수치

주요 분석 내용

1. 美-中 경쟁 등으로 中 기업들의 제3국(베트남·멕시코 등)에 대한 수출 및 투자 증가세 확인

- 미국의 중국 외 국가 수입이 증가한 한편, 中 기업의 멕시코 및 타 국가 수출 증대
 - 中 관세청에 따르면, '17년~'23년 사이 중국의 對멕시코·태국 총수출액은 1,587억 달러(약 219조 원)로 두 배 이상 증가*
 - * 동기간 중국의 대외 수출액은 49% 증가 수준
- 멕시코·베트남이 中 제조·물류 프로젝트 최대 진출국으로 부상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계획 중 멕시코 투자가 41건*, 베트남 투자가 39건인 것으로 추정
 - * 中 국영기업 상하이자동차의 20억 달러 규모 멕시코 공장 투자 설립 등을 포함
- 상기 수치는 '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2. 中 기업, 관세 회피를 위해 현지 투자로 생산시설 확장

- 미국이 中 제품에 대한 180억 달러 규모의 관세부과를 발표하면서, 中 소규모 제조업체들도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 고려
 - 中 대비 높은 생산 비용 및 현지 근로자의 낮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中 기업들은 베트남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해외 공장 이전을 검토

향후 전망

-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트남의 대규모 무역 흑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우회 수출 제재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美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 그룹은 베트남의 對美 무역 흑자가 크게 증가한 이면에는 공급망의 전환도 있으나, 단순히 수출 경로만 변경한 사례도 있음을 지적

핵심 키워드

우회 수출

대중 제재

출처: 파이낸셜타임스('24.06.03),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 제24-42호('24.06.0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OPEC+, 원유 감산 '25년 말까지 연장 결정

6.2일(현지시간) OPEC+ 회의에서 하루 366만 배럴 규모의 공식 감산체제를 '25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회원국의 220만 배럴 규모 자발적 감산도 9월 말까지 연장 결정 출처: 로이터통신('24.06.0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금번 감산 조치는 美 원유 생산량 증가와 고금리에 따른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1주)

비철금속 | 美 조기 금리 인하 기대약화 및 재고량 증가로 동·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5월	전년비(%)	5.5주	6.1주	전주비(%)
동	8,478	8,988	6.0	10,157	9,877	△2.8
니켈	21,474	17,505	△18.5	19,980	18,529	△7.3
아연	2,647	2,607	△1.5	3,024	2,860	△5.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최근 미국 고용시장 강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약화로 비철금속 가격 하방 압력이 발생한 가운데 美·中 무역갈등 심화 및 재고량 증가로 전기동 가격 전주 대비 2.8% 하락

(니켈) 뉴칼레도니아 소요 사태 완화 및 공급과잉에 따른 거래소 재고량 증가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철강

中 조강생산 감축규제 우려 및 제강사 생산 저하로 철광석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5월	전년비(%)	5.5주	6.1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31.37	△24.2	140.08	137.18	△2.1
원료탄	295.71	281.46	△4.8	240.25	252.55	5.1
철광석	119.32	120.86	1.3	117.95	107.95	△8.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철광석) 美·中 무역갈등 심화, 중국의 철강부문 수요둔화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철광석 가격 하락세

(유연탄) 국제유가 하락 및 주요국 계절성 발전수요 둔화로 연료탄 가격 하락세 시현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6월 1주)

희소금속 | 과잉공급으로 코발트 가격 ↓, 높은 원료비용으로 페로망간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5월	전년비(%)	5.5주	6.1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61	△8.2	1,360	1,440	5.9%
탄산리튬	35,697	14,506	△59.4	14,523	14,081	△3.0
수산화리튬	37,972	13,091	△65.5	13,284	12,772	△3.9
코발트 (U\$/lb)	17.82	16.96	△4.8	16.75	16.67	△0.5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76,556	△16.3	274,100	264,700	△3.4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4,798	△30.1	53,420	52,140	△2.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코발트) 유럽 코발트 금속가격은 수요 증가에도 지속적 시장 과잉공급으로 전주 대비 소폭 하락
- ❏ (페로망간) 공급업체의 공급량 축소 및 높은 원료비용 유지로 전주 대비 가격 상승
- ❏ (희토류) 수요 업체가 추가적인 가격 하락세를 예상하며 구매를 관망하면서 전주 대비 가격 하락

에너지 | OPEC+ 감산 완화 예고, 美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국제유가 하락세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3년	'24년	전년비	5.5주	6.1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83.19	1.09	84.18	79.32	△4.86
브렌트유	82.17	83.27	1.11	82.88	78.54	△4.34
WTI	77.60	78.63	1.03	78.49	74.27	△4.22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원유) ▲OPEC+ 감산 완화 예고, ▲美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유가 하방압력 발생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불확실성 및 러시아 석유 인프라 피격 등은 하락폭 제한
 - ➡ 6.2일(현지시간) 진행된 회의에서 OPEC+는 2차 자발적 공급감축(216만 b/d)을 '24.3분기까지 연장하되, '24.4분기부터 '25.3분기에 걸쳐 점진 완화한다고 밝힘
 - ➡ ISM이 발표한 美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로 4월 49.2 대비 하락

월간 공급망

소부장 품목 심층분석 - 불화수소

작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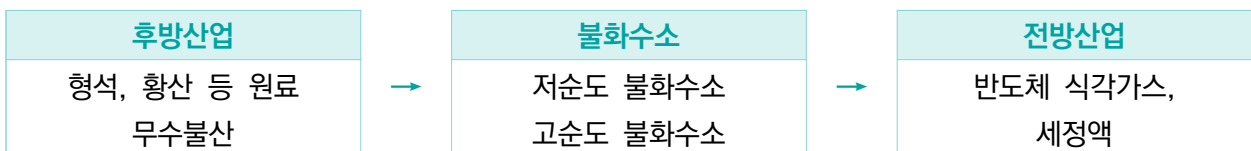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칭가스, 이차전지 전해액, 냉매 등 국내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 반도체용 불화수소에 대해 알아보자.

불화수소 품목 개요

- ▶ 불화수소(HF)는 무수불산(AHF)을 물에 녹인 액체로, 반도체 소자 형성을 위해 웨이퍼의 패턴 형성 및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식각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 ▶ 반응성이 강하고 발연성이 높아 주로 물과 혼합하여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불순물 제거와 웨이퍼 세척에 사용되며 화장실 청소제, 불소치약, 농약 등 일상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 중
- ▶ 고순도 불화수소를 에칭 가스로 사용하면 공정 수율이 높아져 반도체용 불화수소는 순도 99.999% 이상을 사용

불화수소 가치사슬

[표 1] 불화수소 가치사슬



불화수소 산업 동향

- ▶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공정 중 식각, 세척 등의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 최근에는 리튬이온배터리 전해질의 주재료로 사용되면서 이차전지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
- ▶ 불화수소 시장은 전방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업황에 큰 영향을 받으며, 형식의 가격은 중국의 정책 및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
- ▶ 산업부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불화수소의 원료인 형식, 무수불산의 공급망 안정화 및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체 수입 및 비축 확대 등 추진

국내 수출액 추이 ('19~'23년)

'23년 불화수소의 수출액은 1,1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42.0% 감소

[표 2] 수출액 변화 추이(최근 5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천 달러)	16,211	16,059	17,231	18,876	10,940

국내 수입액 추이 ('19~'23년)

'23년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8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23.9% 감소

[표 3] 수입액 변화 추이(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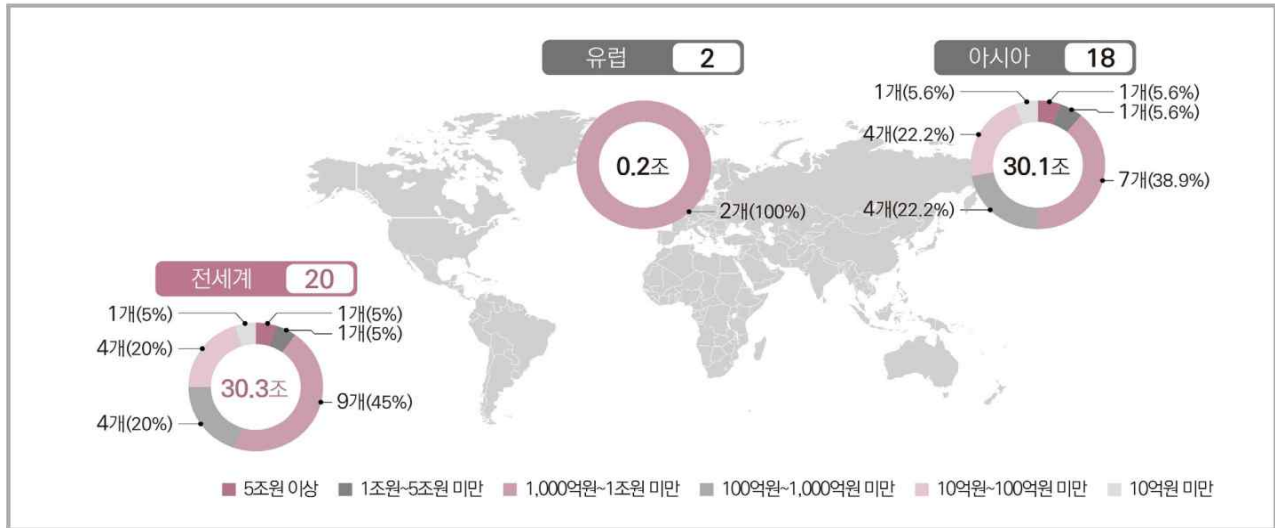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천 달러)	112,927	72,895	93,556	108,042	82,166

불화수소 기업 동향

	국내	국외
기업명	A사	(日) STELLA CHEMIFA CORPORATION
	B사	(中) SHANDONG DONGYUE CHEMICAL CO., LTD.
	C사	(日) MORITA CHEMICAL

-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생산업체는 STELLA CHEMIFA, MORITA CHEMICAL 등이 있음
- 국내 A사는 '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사들에 불화수소 공급 중
- 국내 A사는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파운드리 생산공장 신설에 따라, 최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대규모 부지 매입을 통해 미국 투자 진출 기회 확대
- 국내 B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기업에 식각액·시너·박리액·세정액·현상액 등의 재료 공급
- 국내 C사는 2020년 순도 99.999%의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

[표 4] 불화수소 주요 생산기업 현황



*출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불화수소 기술 동향

- ▶ 국내 불화수소 기술 수준은 액체의 경우 일본기업과 동일한 12N급 고순도 제품, 기체의 경우 일본기업과 동일한 5N급 고순도 제품 생산 가능
- ▶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 불화수소를 사용한 극저온 식각장비 적용을 테스트 중
- ▶ 불화수소 제조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액화수소 생산을 위하여 SK E&S, 효성, 하이창원 등에서 액화수소플랜트를 준공 및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은 MOU 체결

출처 및 참고자료

-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23 GVC 산업분석 보고서 및 GIVC 시스템
- ▶ 한국무역협회 K-STAT, 국내 품목 수출입 현황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국산화 전략품목 상세분석
- ▶ 언론보도 및 기업 홈페이지 정보

공급망 더 알아보기

◆ IEA의 청정에너지 보급 동향과 시사점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2024.4.15)

원문 IEA(2024.3), Clean Energy Market Monitor

IEA는 태양광, 풍력, 원전, 전기차, 히트펌프, 전해조를 6대 청정에너지 기술로 지정하고, 이 기술들의 최신 보급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24.3월에 발간하였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청정에너지 보급 동향과 영향('19~'23년)

- (보급) '19년 이후 청정에너지 보급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20년)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위기('22년) 대응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청정에너지 보급이 증가
 - ▶ '19~'23년 동안 청정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거의 2배 속도로 증가함. 특히 서유럽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량이 약 1,800TWh 증가
 - ▶ 반면, 화석연료는 동 기간 발전량이 850TWh 증가하였고, 이는 태양광발전 910TWh, 풍력발전 885TWh에도 못 미침.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화석연료보다 약 2배 정도 높음
- (영향) 지난 5년간 태양광, 풍력, 원자력, 전기차, 히트펌프와 같은 청정에너지 보급으로 연간 약 25EJ의 화석연료 수요를 감축
 - ▶ 연간 석탄 수요는 약 580Mtc, 천연가스 수요는 연간 약 180bcm, 석유수요는 연간 약 1mboe/d 감축
 - ▶ 연간 화석연료 수요 감축량(25EJ)은 '23년 전 세계 화석연료 수요의 약 5%를 차지하며, 일본과 한국을 합한 연간 총 에너지 수요보다는 약간 적음

□ 6대 청정에너지 기술별 보급 현황('23년)

① 태양광

- '23년 전 세계 태양광은 역대 최대 보급량인 420GW를 기록하였고 이는 중국의 신규 설비용량에 기인함
 - ▶ (중국) 정부의 산업·상업·유틸리티부문의 태양광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중국의 태양광 보급량은 '22년 대비 2.5배 증가한 261GW 기록
 - ▶ (EU) '23년 보급량은 53GW로 전년 대비 25% 증가함.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e 보급을 증가시켰고, 글로벌 에너지위기로 인해 높아진 전기요금이 지붕형 태양광 보급을 촉진
 - ▶ (미국) 공급망 문제 완화로 보급이 '22년 대비 50% 증가한 32GW이고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주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발전용 및 지붕형 태양광의 보급이 증가

② 풍력

- ▶ '23년 전 세계 풍력 보급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17GW를 기록하여 '20년 이후 최고치
- ▶ (육상) 중국은 전체 보급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보급량이 증가하였지만, EU와 미국은 감소함
- ▶ EU는 기자재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공급망 제약 등의 어려움으로 경쟁 입찰 참여 자체가 위축되었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에는 세금공제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서 풍력 보급률이 '22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였지만, 향후 몇 년간은 IRA에 힘입어 보급이 크게 증가할 전망
- ▶ (해상) 중국의 '23년 해상풍력 보급량은 증가하였지만 '21년에 미치지 못함. 이는 보조금이 중단되기 전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려고 '21년에 대폭 증가함. 중국 외 지역은 해상풍력 개발 비용 상승으로 보급에 어려움

③ 원전

- ▶ '23년 원전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5.5GW이고, 벨라루스, 중국, 한국, 슬로바키아, 미국에서 각각 1기씩 5개의 신규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함. '24년 초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원자로 58개(60GW 이상)
- ▶ (개도국) '19~'23년 동안 신규 원전 보급은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신규 원전 용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특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GW의 신규 원전을 보급함
- ▶ (선진국) 신규 원전은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년간 신규 원전 용량의 약 25%(8GW)를 차지함. 특히 한국에서 4GW의 신규 원전이 지난 5년 동안 보급됨

④ 전기차, 히트펌프, 전해조

- ▶ (전기차) '23년 전기차 판매량은 35% 증가한 1,400만 대로, 전 세계 차량 판매량의 약 20%를 차지
- ▶ 중국은 전기차의 최대 시장으로 보조금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약 800만대(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60%)를 판매하였고, EU는 약 240만대, 미국은 약 140만대 판매됨
- ▶ (히트펌프)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23년 전 세계 보급량은 감소하였지만, 중국은 유일하게 증가
- ▶ (전해조) '23년 보급은 전년 대비 360% 급증한 600MW를 기록하여 누적 설비용량은 1.3GW에 도달
- ▶ 이는 중국의 보급 증가('23년 451MW)에 기인하며, EU(73MW)를 앞서나감. 미국이 보급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중동이 네옴 프로젝트(2GW 이상)로 주요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시사점

- ▶ 글로벌 청정에너지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23년 청정에너지 보급량을 보면, 여전히 중국과 선진국에 집중
- ▶ '23년 중국과 선진국은 태양광 및 풍력 보급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95% 이상을 차지함. 전해조와 히트펌프도 이와 다르지 않음
- ▶ 원전은 이와 달리,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주도하고 있음. 아울러, 원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변화로 많은 국가들이 기존 원전 운영 연장 및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 히트펌프의 경우, 유일하게 '23년 보급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가스 가격 인상 완화에 기인함. 따라서 히트펌프 보급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금융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와 가스 가격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

공급망 소식통

SEOUL FOOD in Bangkok 2024 B2B 참가기업 모집

KOTRA에서는 우리 식품기업의 성공적인 동남아 시장 진출 및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SEOUL FOOD in Bangkok 2024의 B2B 전시회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태국 및 아세안 인근 지역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행사 개요

- 기 간 : '24.10.18.(금) ~ 20.(일)
- 장 소 : 태국 방콕 Icon Siam, True Icon Hall 7F
- 주 최 : KOTRA
- 규 모 : 2,775sqm / 국내기업 100개사·130개 부스
- 내 용 : 전시부스 조성, 태국 및 아세안 바이어 초청 1:1 상담회 등

행사 순서

참가 대상	K-Food, 식품기계, 푸드테크, 프랜차이즈 및 주방용품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항	전시 부스	온라인 마케팅	전시품 편도운송
	- 기업별 부스제공 * 독립/조립 구분, 9sqm - 기업별 바이어유치, 상담지원	- 온라인전시관 입점 지원 - SNS 검색광고 * 필요시 사전·사후 화상상담 진행	- 공식 협력사 이용시 기업당 편도 50만원 이내 지원 * 통관비, 기타 세금 등 제외 ** 공식 운송사를 통한 전시품은 임시 수입절차에 따라 통관 진행 (전시회 종료 후 전량 재반송)
참가비용	- 독립부스 (460만 원) : 전시용 면적제공, 전시구조물 시공 및 전시 기업 자체 수행 - 조립부스 (520만 원) : 기본장치(테이블 등), 가구 및 구조물		
개별부담	상기 지원사항 외 일체 * 전시품 반송비용(편도)·관세(통관 시)·통역비용·출장경비 등		

사업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바로 가기\]](#) 클릭 후 참가 신청 및 참가비 계좌 납부*
* 주의 사항 등 상세 내용 상기 사업 소개 페이지 참조
- 마감 기한 : ~6.21.(금) 까지
- 문의처 : KOTRA 전락전시팀 ☎ 02-3460-7263·7261 / ✉ onlinekoreaexpo@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4.6.11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2년	’23년	’24.2월	6/7	6/10	6/11	전일비	전년말비
₩/U\$	1,264.50	1,288.00	1,331.50	1,365.30	1,376.00	1,378.40	0.17%	7.02%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29.30	1,363.40	1,373.80	1,375.80	0.15%	6.92%
₩/CNY	181.44	181.37	185.10	188.96	189.86	189.98	0.06%	4.75%
₩/¥100	945.56	912.25	888.91	879.99	875.93	876.40	0.05%	△3.93%
¥/U\$	133.73	141.19	149.79	155.15	157.09	157.28	0.12%	11.40%
U\$/EUR€	1.0617	1.1105	1.0835	1.0889	1.0751	1.0769	0.17%	△3.03%
CNY/U\$	6.9630	7.1092	7.1938	7.2426	7.2475	7.2533	0.08%	2.03%

* ’23년 평균 환율: (₩/U\$) 1305.9원, (₩/¥100) 931.6원 / ’24년 평균 환율(’24.1.1일~현재): (₩/U\$) 1346.2원, (₩/¥100) 890.3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12/29('23년)	6/10	6/11	전일비	'23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0.18	81.87	1.7	11.6	4.8
						2.1%	16.4%	6.2%
철광석		97.35(5.24일)	140.50	108.50	103.80	△4.7	6.5	△36.7
						△4.3%	6.6%	△26.1%
비철 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9,694.50	9,567.00	△127.5	1754.5	1091.0
						△1.3%	22.5%	12.9%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515.50	2,475.00	△40.5	406.5	139.5
						△1.6%	19.7%	6.0%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7,835.00	17,650.00	△185.0	1765.0	1350.0
						△1.0%	11.1%	8.3%

반도체

구 분	’21년	’22년	’23.12월	’24.1월	’24.2월	6/6	6/7	6/10*	6월(~10)
D램(8G) 한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4	1.86	1.95	1.90	1.89	1.89	1.90
(%, YoY)	29.9%	△23.0%	△14.8%	△3.6%	6.6%	25.5%	24.9%	24.9%	25.8%
낸드(128G) 한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8	6.38	6.42	6.38	6.37	6.37	6.38
(%, YoY)	14.7%	10.7%	△2.3%	△1.9%	△0.7%	0.5%	0.4%	0.4%	0.7%

* 거래소 휴장 / 전일(6.7) 수치 기재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12/30(’22년)	12/29(’23년)	5/24	5/31	6/7	전주비(5/31)	전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703.43	3044.77	3184.87	4.6%	81.0%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12/23(’22년)	12/22(’23년)	1/1	6/6	6/7	6/10	6/11	전주비(6/10)	전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869	1881	1883	1831	△2.8%	△12.6%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gvc_monitoring@kotra.or.kr
gvc02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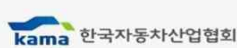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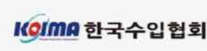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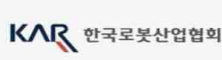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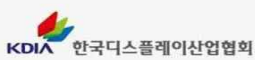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